열흘 넘게 무소식… '꽁꽁 언' FA 시장, 거품빠지는 프로야구

지난달 27일 '불펜 최대어' 정우람 이후 계약 無

대형 계약은 물론 이적도 없이 폐장할 가능성↑

지난달 27일. '불펜 최대어'로 꼽히던 정우람이 원 소속구단 한화 이글스와 4년 총액 39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자유계약선수(FA) 계약 소식은 단 한 건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2020년 FA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에 잔뜩 끼었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형 계약은 물론, 이적도 없이 폐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FA 시장에는 총 19명이 권리를 행사했다. 그 중 1호 계약자 이지영을 포함해 총 3명만이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다. 12월이 넘었지만 아직 16명의 소속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지영은 지난달 13일 키움 히어로즈와 3년 18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19일에는 유한준이 KT 위즈와 2년 20억원에 사인했고, 27일 정우람이 한화 유니폼을 계속 입기로 했다. 3명 모두 원 소속구단 잔류다.

마지막 정우람의 계약 이후 열흘이 넘었지만 성사된 계약은 없다. 소위 '빅4'로 꼽히는 전준우, 오지환, 안치홍, 김선빈도 관련 보도만 잇따를뿐이다.

그중 오지환은 원 소속구단 LG 트윈스에 계약을 백지위임했다. 그러나 계약은 차명석 LG 단장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는 1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예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FA 시장에서는 총액 50억원 이상의 계약이 1건 이상 등장했다. 이택근이 LG에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 이적한 것이 시작이었다.

2017년에는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와 계약하며 처음으로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양의지가 포수 최고액인 125억원에 두산 베어스에서 NC 다이노스로 팀을 옮겼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본적으로 FA 선수 몸값은 경쟁이 붙어야 오른다. 그러나 보상선수 출혈을 감수하면서 외부 FA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다. 자연히 선수들의 선택지는 원 소속구단으로 좁혀지고, 몸값도 오를 수 없다.

2020년 FA 자격 선수 중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전준우,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

이같은 상황을 두고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O 관계자는 "이제 구단들이 선수 영입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KBO리그가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KBO리그 선수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택근이 50억원, 최형우가 100억원 벽을 뚫었고,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이대호는 최초로 150억원에 계약했다.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전체 FA 선수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를 돌아봐도 거품이 절정에 달한 뒤 위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 잠잠한 FA 시장. KBO리그의 거품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뉴스1

손흥민 '70m 질주 원더골' 빠른데 침착했고 정교했다

19경기서 10골9도움…12월의 '손타클로스' 기대 커져

만화 같은 골을 성공시킨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고, 그 무대가 최고의 리그라 불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게 놀랍기만하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EPL 16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5-0 완승을 이끌었다.

전반 5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도운 손흥민은 전반 32분 환상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며 직접 골을 뽑아냈다. 토트넘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아챈 손흥민은 쾌속 질주로 번리 문전까지 내달린 뒤 침착한 마무리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득점에 성공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9일 오전 손흥민을 이주의 팀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하면서 "사실 피치 전체를 이렇게 내달리려면 모든 수비수들보다 빨리 달려야하는데, 이 놀라운 일을 손흥민이 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날 손흥민의 '원더골'은 드리블 과정에서 손흥민은 최소 10번 이상 볼 터치를 했다. 움직이면서, 그것도 상대 수비수들이 뒤로 밀리는 빠른 주력으로 뛰면서도 공이 손흥민의 발 언저리에 머물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칭찬할 것이 마지막 순간의 침착함과 정교함이다. 수비수들이 붙는 상황에서 70m 이상을 달렸다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게 당연하다. 손흥민은 골키퍼의 움직임까지 보고서 슈팅을 성공시켰다.

이미 EPL에서도 톱클래스 공격수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이번 득점으로 확실히 달라진 레벨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예전부터 최대 강점이던 스피드에 침착함과 정교함도 더해졌다.

토트넘의 새 감독 모리뉴는 "이전부터도 내 아들은 손흥민을 손나우두(손흥민+호나우두)라 불렀다. 이날 손흥민은 진짜 손나우두였다"라고 칭찬했다.

정규리그 14경기에서 5골, UEFA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5골. 총 19경기에서 10골로 일찌감치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다. 도움도 9개다. 결국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작성하고 있는 셈. 만화 주인공 같은 선수가 12월만 되면 선물을 가득 가져오니 팬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고 있다.

손흥민은 EPL에 진출한 뒤 12월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4경기에 출전해 4골 3도움을 올렸고 지난해 12월에도 EPL에서 6골3도움을 기록해 '손타클로스'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다. 올 시즌도 느낌이 좋다.

12월의 첫 경기였던 지난 5일 맨유전은 패배(1-2)와 함께 빛이 바랬으나 번리전 환상골과 함께 흐름을 확 바꿨다. 2019년 12월 한국과 토트넘의 팬들은 또 한 번 '손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해도 좋을 분위기다.

'겨울 스포츠명소'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14일 개장

내년 2월9일까지 운영…입장료 · 대여료 1000원

2013년 처음 개장해 지역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이 14일 개장한다.

야외스케이트장은 1800㎡(60×30m), 만 6세 미만 어린이(부모 동반)를 위한 얼음썰매장은 600㎡(30×20m) 규모로 매점과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내년 2월9일까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예년과 같이 스케이트장 · 썰매장의 입장료와 스케이트 · 썰매,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등은 50% 감면한다.

이용시간대는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오후 1~2시)은 장애인스케이트 체험교실을 운영해 지역 소외계층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스케이트장에는 지난 여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수리 · 달이 마스코트 포토존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야외활동에 지친 피로를 재충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한 정보통신기술(ICT)체험관도 운영한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자이언트 캣과 귀여운 미니동물을 소환하는 체험,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야간에는 스케이트장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꼬마전구 등으로 장식한 조경수,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팅볼으로 꾸며진 빛의 정원 등 야간조명을 설치해 겨울밤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신봉우 기자